HI 중공업 Flash - 17년 11월 3주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신조선가지수 상승, 컨테이너선 16척 인콰이어리, 그러나 매출 큰폭 감소

코멘터리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① 신조선가지수가 1p 오른 125p를 기록했습니다. 선종별로 케이프와 파나막스 벌크선 뿐만 아니라, 수에즈막스와 아프라막스 탱커 선가도 상승했습니다.

② Zodiac, Evergreen, Capital Maritime이 11,000teu~14,000teu 컨테이너선 최대 16척 발주를 위한 enquiry를 접수했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Zodiac은 11,000teu 최대 5척 건조를 현대중공업과 문의 중이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여서 내년 봄 정도에 수주모멘텀을 기대해볼만한 보도입니다. 그 전까지 실적은...

실적은 걱정됩니다.

③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10월 매출액이 공시되었는데, 전년동기대비 45% 안팎 감소했습니다. 4분기와 내년 1분기 건조량이 가장 부족한데, 도크 가동 중단, 순환 휴직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④ 현대중공업이, 러시아 Gazprom으로부터 수주한 FSRU가 건조 과정에서 보일러 사고로, 납기가 최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으로서..

⑤ Sembcorp의 Johan Castberg Hull 수주가 확정되었습니다. 계약가격은 $492m인데 초기 알려진 Sembcorp의 가격은 $560m이어서, 협상 막판에 가격을 크게 내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기 36개월 후 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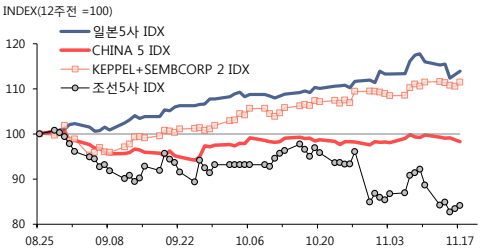
⑥ 한국이 수주를 노리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Shell과 ExxonMobil이 Penguin FPSO EPC를 Fluor에 발주했고, Fluor는 중국 COOEC, CIMC Raffles에 건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중국도 2000년초 한국과 같이 오일메이저들의 해양 제작사로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울트라 메가 야드인 한국 BIG3는 초대형 구조물 공사에서 그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으로 여전히 판단합니다. 2018년 발주 예정인 Rosebank, Bonga, Tortue FPSO의 3개 대형 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기계에서 호재와 악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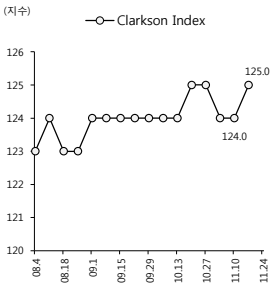
⑦ 두산그룹이 CS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두산엔진 매각을 본격화 합니다. 두산엔진에게는 밥캣 지분 현금화 등 호재로 판단합니다. 11월7일 발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⑧ 두산밥캣도 PP 사업 매각에 나섭니다. 두산 그룹이 전반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⑧ 히타치가 19년만에 다시 한국 시장에 재진입합니다. 63빌딩 엘리베이터를 공급했고 중국 111층에 최고속 엘리베이터를 납품한 히타치는, 한국의 초고층 빌딩을 타겟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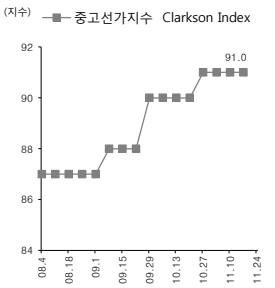
대표 차트

▶ 한/중/일/싱 주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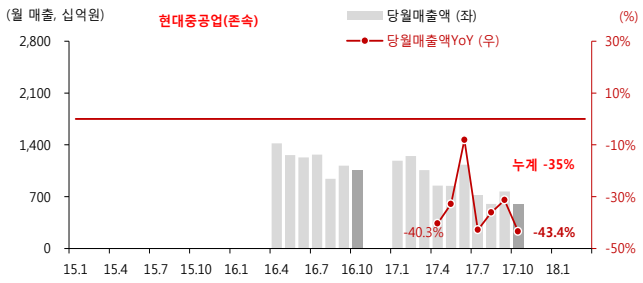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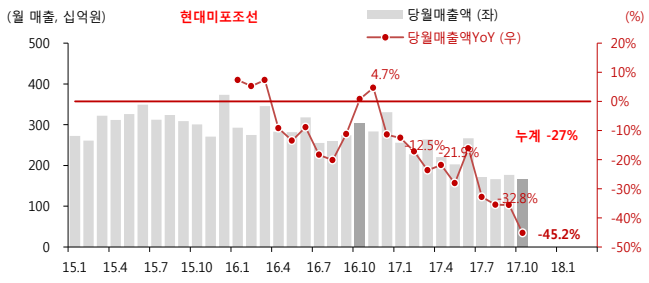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상승





▶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10월 매출 하락폭 더 가팔라져





HI 중공업 Flash - 17년 11월 3주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실적과 ASP

△ 신조선가지수 1p 오른 125p 기록: 케이프, 파나막스 벌크선과 수에즈막스 아프라막스 탱커 선가 올라
▼ 현대중공업, Gazprom FSRU 보일러 사고로 최대 1년 연기
▽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10월 매출 전년동기대비 각각 43%, 45% 감소

해양 주변국의 위협

▼ Shell, Penguins FPSO, Fluor+COOEC와 LOI
▼ Johan Castberg, 싱가포르 Sembcorp 수주 공식 발표

조선의 호재들

▲ 중국 Yangzijian 조선 대표 왈, 최대 40개 중국 조선사 문 닫을 것
▲ Zodiac, Evergreen, Capital Maritime 등, 컨테이너선 (투기)발주 의향 확인됨: 현대중공업과 협의

기계

▲ 두산그룹, 두산엔진 매각착수
△ 두산밥캣, '포터블파워' 사업 매각: 3천억원대
▽ 효성 중공업부문 3분기 실적 부진
▼ '히타치' 19년만에 한국시장 재진출... 엘리베이터 업계 술렁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지수 1p 상승

신조선가지수 1p 오른 125p 기록: 케이프, 파나막스 벌크선과 수에즈막스 아프라막스 탱커 선가 올라
중고선가지수는 91p 제자리: 케이프 벌크가 $0.5m 하락했지만, 파나막스 벌크가 $3m이나 상승

▼ 현대중공업 → Gazprom, FSRU 보일러 사고로 인도 연기

- 현대중공업은 Gazprom Flot의 174k FSRU 건조 중, Gas Trial에서 사고로 장기 인도 연기 발생 불가피
- 파손된 보일러를 고치는 것보다, 새 보일러를 설치해야해, 최대 1년 정도의 인도 연기가 불가피
- Gazprom도 Kaliningrad의 jetty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FSRU 인도가 아주 급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함
- 해당 프로젝트는 리튜아니아와 폴랜드 사이의 발틱해에서 1.5MTPA LNG를 수입하는 프로젝트

△ 3번째 Yamal 쇄빙LNG선 출항

- 3호선은 Dynagas, Sinotrans, China LNG shp.의 172,600cbm
- 11월22일부터 내년2월까지 NSR을 항해할 계획: 11월25일 수출 터미널에 도착해, 12월초 첫 화물을 적재할 예정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_생산

▽ Pacific Drilling Restucturing에, Idan Ofer $100m 유동성 공급

- Chapter 11을 앞두고 있는 Pacific Drilling에 오너 Idan Ofer가 $100m을 투입 결정
- 2006년 IPO 자금 $650m과 함께 16억$ Equity로 시작한 Pacific Drilling은 현재, 30억$의 채무를 조정해야함
- 2016년3월부터 개시된 채무조정 협의는, 올해 9월에 접어들어 사측이 2023년~2024년으로의 채무 만기 연장을 희망하고 이는 상황
- 현재 주주들은 17.5% 지분을 유지하고, 추가로 10%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
- Pacific Drilling은 7척이 드릴쉽을 보유 중인데 3척이 용선 운영 중이고 4척은 Stack 상황

↘ ▷ 삼성중공업 vs. Pacific Drilling, 중재 2018년 2월 결정

- 2018년 2월 "arbitraion hearing"이 열릴 예정
- 2015년 10월 Pacific Drilling은 Pacific Zonda 드릴쉽을 계약 취소했고, 계약 조건(스펙)대로 인도되지 않음을 취소 사유로 주장
- 삼성중공업은 Pacific Drilling에 $350m 지급 클레임을 제기: 인도를 거부했다고 주장
- Pacific Drilling은 $181m 선수금과 이자비용을 요청한 상황: 중재는 2018년 2월5일 열릴 예정

>> 삼성중공업 잘못으로 인도가 연기되었거나, 스펙이 옳바르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 통상 선수금은 조선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중재가 마무리되어 왔습니다.

▼ Shell, Penguins FPSO, Fluor+COOEC와 LOI

- Shell과 ExxonMobil은 신조 Sevan Marine-design Floater를 Fluor와 LOI 체결: 400천 배럴 저장, 탑사이드 1.2만톤~1.4만톤
- Fluor의 sub-contract 제작사로 COOEC와 함께 하기로 함
- 경쟁하던 TechnipFMC의 경우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의 Qidong 야드와 함께 했음
- 본계약은 연말 예정이며, 26개월 공기를 거쳐 인도 예정: 운반, hook-up까지 포함하면 총 40개월의 기한 소요
- COOEC는 또한 CIMC Raffles와 함께 작업 예정인데, 과거 CIMC는 Sevan-design floater의 Hull을 제작해 본 경험 있음
: 2007년 Sevan Voyageur FPSO를, Keppel Verlme SY가 탑사이드를 담당하고, CIMC Raffles는 hull을 담당
- 이번 본계약을 위해서, Shell과 ExxonMobil은 지난달 중국 야드를 방문한 바 있음: 사업 허가는 2018년초로 예상

(05월2주) ▼ Shell, Penguins FPSO 프로젝트에 제작처로 중국 조선사 이용 의지 강함

- UK 북해의 Redeveopment 프로젝트에 적용할 Penguins FPSO에 Technip, Flour, Kvaerner가 경쟁 중: 6월2주에 입찰 제출 → 4분기 계약 → 연말 FID
- 각 엔지니어링하우스는 모두 중국 조선사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Shell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함
- 참여하는 세개 중국 야드는, Cosco가 Hull 제작에, Bomesc가 Topside 제작에, COOEC가 Hull과 Topside 모두 노리고 있음
- COOEC는 CIMC Raffles과 파트너(하청)를 이뤄 각각 Topside와 Hull을 나눠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또한 COOEC-Flour의 JV인 Zhuhai도 참여가능하다는 전망도
- Kvaerner의 경우 한국 조선사들과 접촉 중이라는 미확인 정보도 있지만, Shell의 중국에서 FPSO 시공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함
- FPSO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바 있는 Cylindrical FPSO 형태이며, 34천B/D 생산용량: 중국 야드들의 입찰가격에 따라 연말 FID 여부가 결정될 전망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 Johan Castberg, 싱가포르 Sembcorp 수주 공식 발표

- Sembcorp Marine이 Johan Castberg phase1 수주를 공식화
- 입찰 초기 Sembcorp은 $560m을 제시했고, 익히 알려진대로 마지막 순간 "extremely low price"인 $492m으로 수주
>> 공기는 36개월입니다. 3년 후 Sembcorp의 실적을 어서 보고 싶군요.

(10월3주) ▽ 대우조선해양, Johan Castberg Hull 선두: 현대중공업은....

- 대우조선해양이 Statoil의 Johan Castberg phase 1 Hull + LQ에서 HHI, SHI, 싱가포르 회사들을 제치고 선두인 것으로 업데이트
- 대우조선해양만이 Clarification meeting이 진행 중이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의 대화는 종료된 것으로 전함
- 8월4일 시작된 입찰은, 11월1일 EPC 계약으로 종료될 예정
- 조선사별 제안 가격은 현대중공업이 $600m, 삼성중공업이 $595m, 대우조선해양이 $575m으로, BIG3 중 가장 낮았고
- 싱가포르 Sembcorp은 $560m, Keppel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음

(중략)

▶ LNG & LNG 추진

▲ BW와 Golar, Ivory Coast FSRU 경합

- Total의 Ivory Coast LNG 수입터미널에 2개 선사가 경합
- BW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19년 인도 예정인 FSRU를 제안 중이고
- Golar는 가나에 투입 예정이었다가 계약이 깨진 2015년 인도 Golar Tundra를 제안 중
- 사업 FID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로 예상되며, 터미널은 2019년 중순 가동 예정
- Golar LNG는 CI-GNL(Ivory Coast LNG) 컨소시엄의 6%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34% 지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Total은 이것과 입찰은 무관하다고 설명

△ Hoegh LNG, $230m 대출 확보: 현대중공업 선박 인도용

- Hoegh는 ABN AMRO, Danske, Nordea, Swedebank 은행 등으로부터 각 $80m 인핑의 대출(5년)을 따내고
- 현대중공업에 인도 예정인 FSRU 대금의 65%를 커버하게 됨
- FSRU #8은 1Q18 인도 예정: 2015년 발주
- Hoegh는 그 이후 현대중공업에 FSRU #9, 삼성중공업에도 추가로 FSRU #10을 발주했음

▷ BW의 Pakistan FSRU에, Mitsui 지분 참여

- 일본 Mitsui & Co.는 파키스탄에서 용선된 BW Integrity(170k)의 지분 49% 참여
- Mitsui의 첫 FSRU 사업 참여이며, 노우하우를 얻어서, 장차 FSRU 사업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입장
-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된 BW의 2개 자매선 중 1호선은 이집트 EGAS에 투입 중

(10월3주) △ 삼성중공업 건조, BW FSRU 파키스탄 현지 도착

- 2016년 8월 BW가 파키스탄의 LNG 수입 프로젝트를 따냈고, 건조를 마친 FSRU가 현지 도착해 가동을 시작
- 170k BW Integrity는 BW의 투기 발주 중 2호선이며, 1호선은 이집트 Egas에 용선된 바 있음
- 또한 BW는 DSME의 LNG선을 FSRU를 계약변경해, 3호선 투입처를 찾는 중
- 파키스탄은 이미 Egyptian Natural Gas Holding과 FSRU 1호선을 2015년 9월부터 사용 중이며, 이번 BW FSRU가 2번째 도입이후에도
- Shell, Engro, Fatima Fertiliser, Gunvor와 함께 Excelerate의 FSRU로 3번째 수입 터미널을 가동할 예정이며
- Qatar Petroleum, ExxonMobil, Total, Mitsubishi Corp과 Hoegh를 통해 4번째 FSRU를 적용 예정

(16년8월5주) △ BW LNG → 파키스탄 FSRU 프로젝트 따냄

▶ 기타

▷ TEN, 선대 확대 의지 밝힘: 일반적

- TEN은 2016년3월 VLCC 인도를 시작으로 2017년10월말 대우조선-망갈리아로부터 112k 탱커까지 총 15척을 인도
- 최근 18개월간 15척의 신조 투자를 모두 인수받은 TEN, 향후 용선 기반으로 추가 선대확대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힘
- 그간 VLCC 2척, 8척의 아프라막스 탱커, 2척의 LR, 1척의 LNG, 2척의 셔틀탱커에 투자
- TEN의 백로그는 13억$, 2.5년

▲ 중국 Yangzijian 조선 대표 왈, 최대 40개 중국 조선사 문 닫을 것

- 3Q17 실적발표에서, 중국 양지장조선 회장 Ren Yuanlin은 3년에서 5년 내에 최대 40개 조선사가 파산할 것이라고 언급
- 중국에는 60개의 가동중인 공장이 있는데, 이 중에는 고작 1개 선박을 건조 중인 곳도 있다고
- 조선사의 2/3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임
- 철강재에 대해서도, 중국 강재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설명
- 양지장조선은 올해 59척의 16억$를 수주했으며, 2018년 20억$ 수주를 예상한다고 가이던스 제시
- 또한 장차 LNG선, LPG선 등 건조를 위해 자산이나 기술 매입의향도 밝힘

▷ Bahri, VLCC 중고선 매입 등 선대확대 추진

- 1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선사 Bahri는 15억$의 VLCC 벤처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Bahri와 ARICORP(Arab Petroleum Investments Corp)는 벤처를 설립했고,
- 최대 15척의 VLCC를 세 단계에 걸쳐 투자할 예정: 1 단계에 5척씩, 그러나 시황 회복 기미가 보일 경우 한꺼번에 모두 매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
- 주로 중고선 시장을 통해 선박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지난주 없음

N/A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Zodiac, Evergreen, Capital Maritime 등, 컨테이너선 (투기)발주 의향 확인됨: 현대중공업과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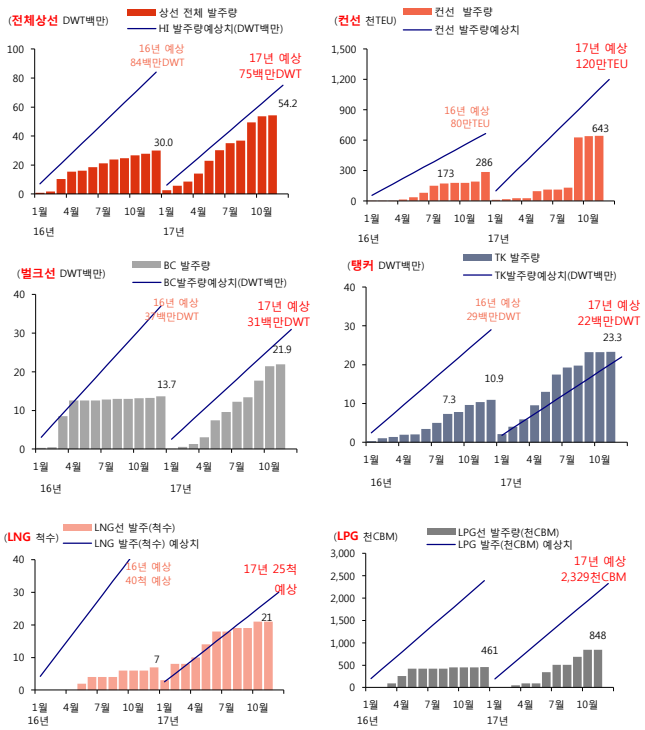
1) Zodiac은 현대중공업과 11,000teu 최대 5척에 대한 투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신조선가는 $90m선, Scrubber 장착
- Zodiac은 500teu ~ 13,100teu 41척 선단을 보유
2) Evergreen도 14,000teu 최대 6척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상세 내역은 알려지지 않음
3) Capital Maritime & Trading도 비슷한 선형의 neo-panamax 4척~5척의 enquiry를 던진 상황
- 한 업계 인물은, 대량의 enquiry들은 다소 투기적인 성격이라고 진단하며: 그는 해운사들이 1년~2년 후의 시황 회복에 베팅하는 것 같다고 설명

△ BP, 2020년 환경규제에 맞춘 VLCC 용선처 선정

- NOx, SOx 배기규제를 맞춘 VLCC 최대 2척 희망: 용선 기한은 3년 + 옵션 1년 + 옵션 1년
- 통상 BP가 장기 용선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이는 향후 강한 시황 회복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지적
- 여전히 2019년 인도물 VLCC는 중국과 한국에서 $77m~$83m에 건조 가능
- 2020년 배기규제를 맞추기 위해, Dual-Fuel을 채용할 경우 선가는 25% 가량
- scrubber의 경우 $2.5m 정도 추가 비용 소요(페이백이 1년 살짝 넘는 정도):
- 현재 scrubber를 채용한 VLCC는 그리스 NS Lemos, Maran Tanker 등 몇몇이 있는 상황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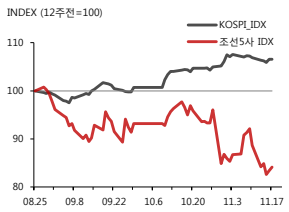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10월4주								
BIG6	Hyundai HI (Ulsan)	17.10.23	한국	Polaris Shipping Co	BULK	325k DWT	2021~2022	5
		17.10.13	유럽	Vitol Group	LPG	84k cu.m.	2019	2
중국	COSCO Guangdong	17.6.1	유럽	Lomar Shipping	CONT	2k TEU	2020~2021	3
	Jiangsu New YZJ	17.10.12	유럽	Navibulgar	BULK	45k DWT	2020	2
	Fujian Funing S.B.	17.7.1	아시아	Unknown Indonesian	FERRY		2018	1
	Chengxi Shipyard	17.10.16	아시아	Nova Shpg & Log	OTHERS	64k DWT	2019	2
		17.7.1	아시아	Nova Shpg & Log	OTHERS	64k DWT	2019	2
	CSC Jiangdong	17.5.1	중국	Zhoushan Guanquan	BULK	10k DWT	2018	4
	Fujian Southeast SB	17.10.20	중국	Fujian Yonghang	BULK	21k DWT	2019	1
		17.8.31	중국	Fujian Anda Shpg	BULK	21k DWT	2019	1
	Ningbo Xinle SB	17.10.23	중국	Shanghai Dingheng	PTK	9k DWT	2019~2021	10
17년11월1주								
BIG6	Hyundai HI (Ulsan)	17.10.26	한국	Korea Line	BULK	325k DWT	2019~2020	2
중국	Jiangsu New YZJ	17.11.1	유럽	Chartworld Shpg.	BULK	82k DWT	2019	1
		17.10.30	아시아	Regional Cont Lines	CONT	2k TEU	2019	2
		17.10.10	유럽	Zihni Group	BULK	82k DWT	2019	1
	New Times SB	17.10.13	유럽	2020 Bulkers	BULK	208k DWT	2020	2
	CSC Jinling Shipyard	17.10.30	중국	Zhonggu Shipping	CONT	2k TEU	2019~2020	6
		17.10.26	Unknown	Qingdao Da Tong	BULK	82k DWT	2019	1
일본	Sasebo HI	17.5.1	유럽	Halcoussis Z. & G.	BULK	85k DWT	2019	1
17년11월2주								
BIG6	Hyundai Mipo	17.11.3	아프리카	Central Shpg Monaco	PTK	50k DWT	2019	1
		17.8.25	유럽	Union Maritime Ltd	PTK	50k DWT	2019	2
	Hyundai HI (Ulsan)	17.9.29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CONT	14k TEU	2019~2020	4
민영	Nantong COSCO KHI	17.5.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61k DWT	2019	3
						62k DWT	2019	1
	Gangzha Shipyard	17.1.1	아시아	Vallianz Holdings	OTHERS		2017	1
	Taizhou Kouan SB	17.11.8	유럽	W Marine Inc.	BULK	82k DWT	2020	1
			아시아	Tomini Shipping	BULK	82k DWT	2019	3
			러시아/CIS	Aquavita Intl	BULK	82k DWT	2020	1
		17.9.1	유럽	Schulte Group	BULK	39k DWT	2019	1
	New Times SB	17.10.13	유럽	Golden Ocean Group	BULK	208k DWT	2019	2
일본	Oshima Shipbuilding	17.2.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62k DWT	2020	1
17년11월3주								
국영	Huangpu Wenchong	17.11.1	브라질	Log-In Logistica	CONT	3k TEU	2019	1
민영	Jiangsu New YZJ	17.9.1	남미	Interocean	BULK	82k DWT	201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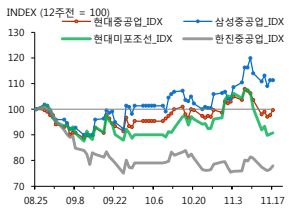
HI 중공업 Flash - 17년 11월 3주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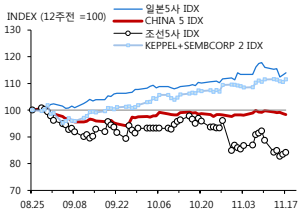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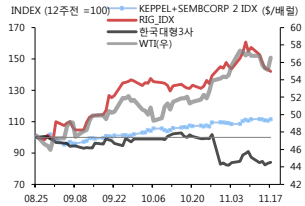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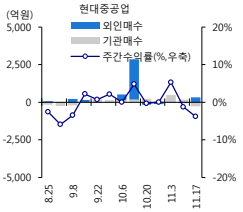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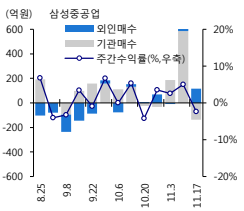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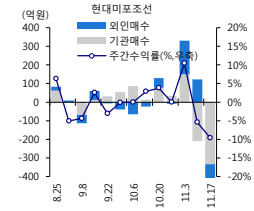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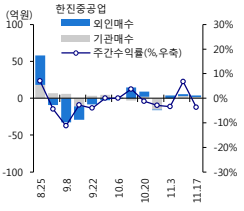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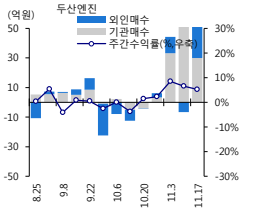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부가 LNG 선박 수출 아낌없이 금융 지원

http://lnr.li/nGqyi

포럼에서 최근 LNG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LNG 선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
... LNG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수주 물량을 대폭 끌어올려 새로운 수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9월 기준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보유잔액 161억달러(약 18조원) 중 LNG 선박 비중은 24억6000만달러로 15.3%를 차지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重 '세대교체'...정기선 경영전면에·권오갑은 지주사로 이동

http://lnr.li/HnkvH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주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최고경영자(CEO)로 경영 전면에 나섬
권오갑 부회장은 현대중공업지주(가칭)로 이름이 바뀌는 현대로보틱스 대표로 자리를 옮겨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
주영걸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의 대표와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대표가 각각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 현대중공업, 2021년까지 R&D인력 1만명 확대 가능할까

http://lnr.li/KX5eS

올해 3분기 R&D 비용은 673억원으로 전년 동기(1502억원) 대비 55% 감소: 구조조정 전인 2014년(2137억원)과 비교하면 약 68% 줄어든 수치
R&D 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큰 폭으로 축소: 2015년 현대중공업의 연구개발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839억원이었지만 올해 3분기 244억원으로 약 71% 감소
4개 회사로 분할되면서 R&D 비용이 분산됐을 가능성도
4사 독립 체제 출범 당시 2021년까지 R&D에 3조5000억원을 투입, R&D 인력 1만명 확보를 골자로 한 '기술·품질 중심의 경영전략'을 발표
조선 부문 불황이 끝나지 않아 단기간에 확대는 어렵지만 고급 설계 인력과 R&D 인력을 중심으로 인적 자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
관계자는 "현재 그룹 전체 R&D 인력은 4000여명에 달한다"고 말

△ 호텔롯데, 러시아 현대중공업 호텔 인수...본계약 임박

http://lnr.li/u33ji

호텔롯데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러시아 현대호텔을 운영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비즈니스센터 지분 100%를 인수하는 안건을 처리: 현재는 가격 협상을 진행 중
관계자는 "협상을 본격화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 현재는 세부 사항들을 협상 중"이라며 "얼마에 살 수 있는 지 보고 있다"고 설명
앞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호텔현대의 지분을 사모투자 전문회사 한앤컴퍼니에 전량 매각한다고 밝힘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선 3사 중 '유일'

http://lnr.li/Q59MX

올 11월부터 순환휴직에 들어간 삼성중공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생산직 근로자 461명이며, 지원금 규모는 사측에서 집행한 휴업·휴직수당 등의 3분의 2 수준
오는 12월 삼성중공업이 계획대로 11월 급여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예산은 무리 없이 집행
삼성중공업이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집행된 총 임금의 3분의 2 정도가 지원
지난 2월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됐지만, 실제로 신청한 회사는 삼성중공업이 유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순환 휴직을 실시 중인데도 불구 아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양사는 모두 '조건 미충족'이 이유
업계 관계자는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구조조정이 불가능해, 고용을 유지하라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조차 할 수가 없다"며 " ...
... "대기업의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신청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수주 도전, 정성립 "손실 없으면 포기 없다"

http://lnr.li/Lc530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해양플랜트 수주전에 참여할 움직임
관계자는 14일 "미국 정유사 쉐브론으로부터 로즈뱅크 프로젝트에 쓰일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건조입찰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서를 받았다"며 ...
...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함
2018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8년 상반기 최종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월 상선과 특수선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해양플랜트는 기존 수주잔량 인도에 집중해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방침 ...
... 수익성 좋은 해양플랜트 일감은 수주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해양플랜트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란 시각이 당시 업계에서 우세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사업의 몸집을 줄일 뿐 해양플랜트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며 해양플랜트 신규수주 활동
수주공간을 채워 대우조선해양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플랜트를 수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 중소형 조선사

▷ 산업은행, STX조선 RG 발급 검토 착수

http://lnr.li/Rtaw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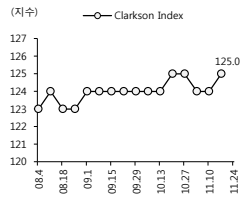
노사가 17일 노사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은은 기 수주계약을 체결한 유조선의 본격적인 RG 발급 검토 작업
앞서 STX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사옥에서 정용석 산은 부행장(구조조정부문장)등 관계자를 만나 ...
... RG 발급 관련 면담을 진행: 이 자리에서 인력감축과 임금동결 등 자구계획이 담긴 확약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노조 측은 설명
STX조선은 이미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줄인 상황으로 사실상 더 이상의 비용 감축은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의 추가 감축을 의미
산은 관계자는 "오늘부터 RG 발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RG발급 기간에 맞춰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함
STX조선은 오는 23일 그리스 오션골드(OceanGold)로부터 수주한 5만1000DWT급 MR탱커 4척에 대한 RG발급과 ...
... 그리스 판테온탱커스(Pantheon Tankers)에 수주한 5만DWT급 MR탱커 6척에 대한 RG발급을 24일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척의 수주계약이 취소

HI 중공업 Flash - 17년 11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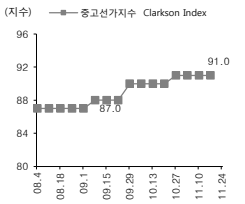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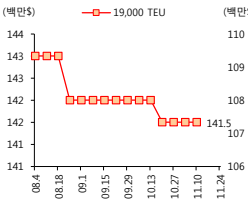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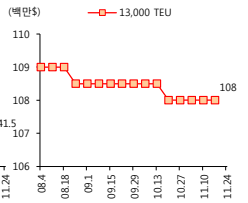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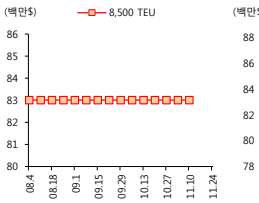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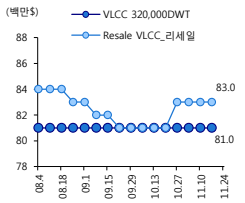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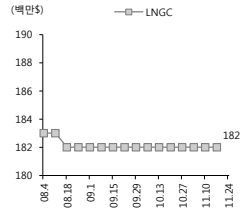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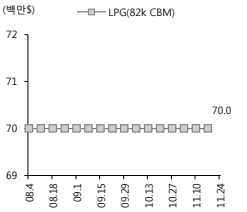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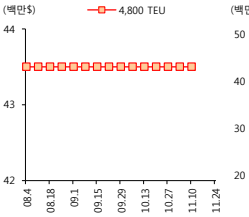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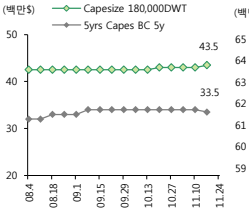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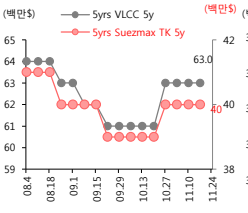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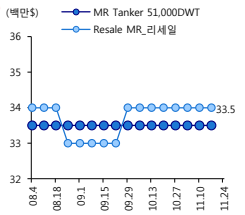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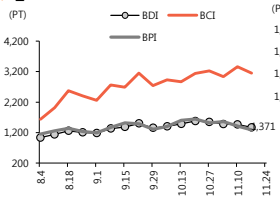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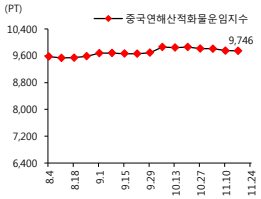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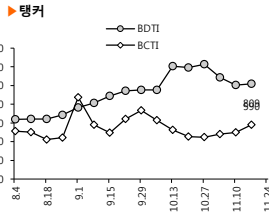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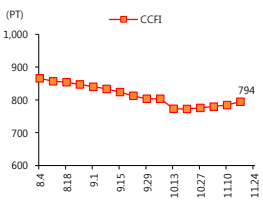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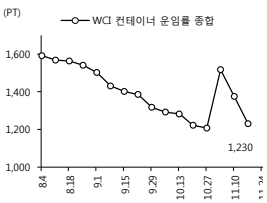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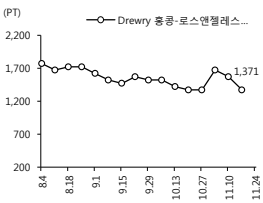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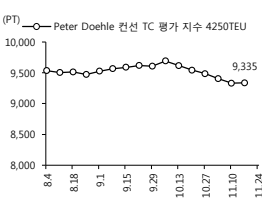
▶컨선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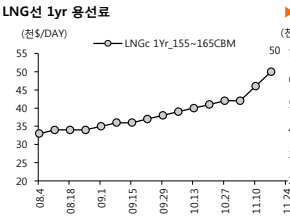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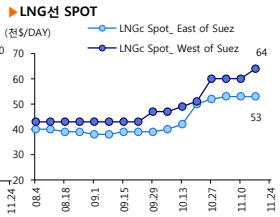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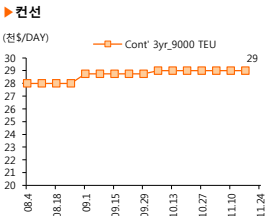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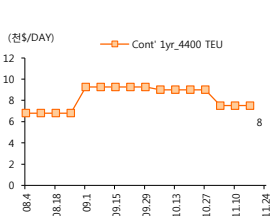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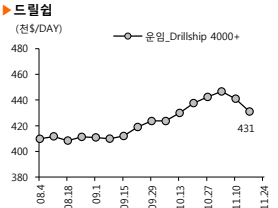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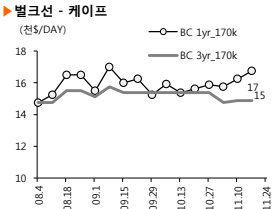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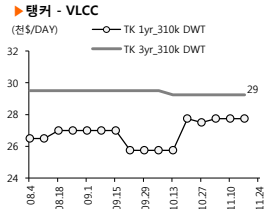
▶드릴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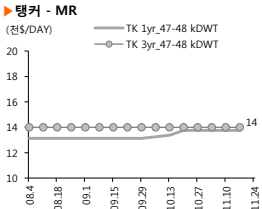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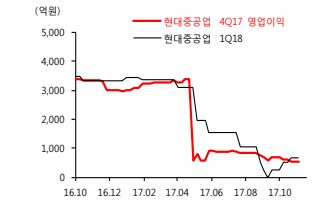


HI 중공업 Flash - 17년 11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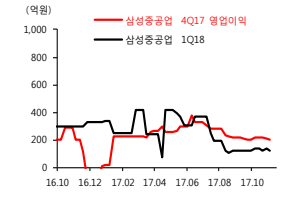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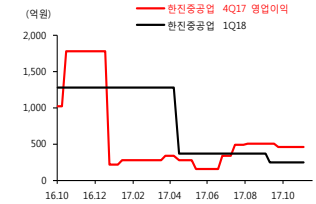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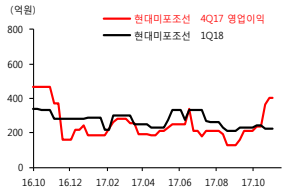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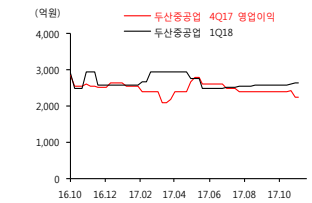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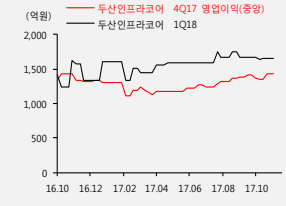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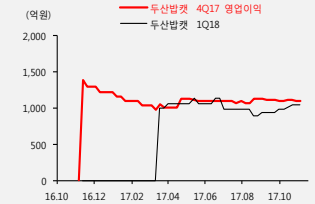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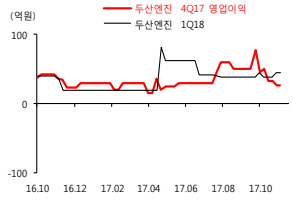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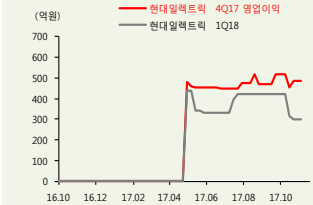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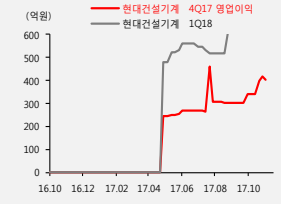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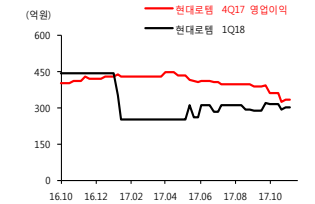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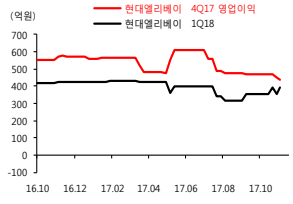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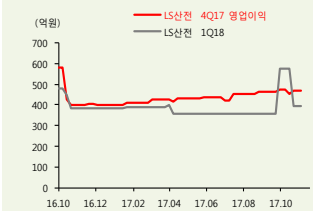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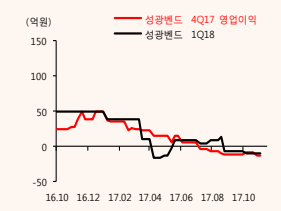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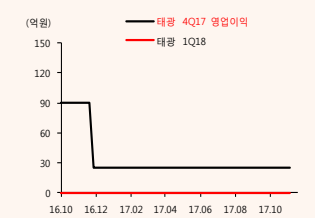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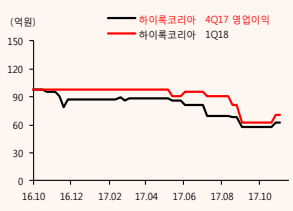
▶성광벤드



▶태광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2017 EPS(원)									Chang(%)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0.21	17.10.28	17.11.04	17.11.11	17.11.17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종가
조선	현대중공업	4,946	5,977	5,985	25,579	33,446	33,446	42,966	42,951	43,999	72%	32%	3.4	151,500
	삼성중공업	298	287	270	284	291	291	314	302	289	2%	-1%	42.6	12,300
	현대미포조선	4,054	6,383	9,201	9,729	11,231	11,231	18,291	19,172	19,037	96%	70%	5.0	94,900
	한진중공업	-203	-103	-123	-385	-883	-883	-883	-883	-883	적지	적지	-4.2	3,745
두산	두산중공업	1,511	1,464	1,047	689	601	690	768	-447	-447	적전	적전	-36.4	16,300
	두산인프라코어	811	816	878	888	911	925	980	991	991	12%	9%	9.0	8,930
	두산엔진	178	203	174	177	166	166	166	142	142	-20%	-14%	34.0	4,850
기계	현대건설기계	27,546	29,191	31,298	30,769	29,497	29,497	30,025	30,509	14,600			11.5	168,000
	현대일렉트릭	26,837	27,560	27,300	26,424	25,810	25,440	25,434	25,232	25,232			4.7	117,500
	LS산전	3,575	3,673	3,862	3,900	3,929	3,928	4,106	4,106	4,079	5%	4%	15.0	61,300
	현대엘리베이	5,325	5,326	4,926	4,420	4,290	4,290	4,481	4,029	3,897	-12%	-9%	14.1	54,800
	현대로템	656	648	523	469	419	419	409	411	411	-12%	-2%	46.8	19,250
방산	한국항공우주	2,503	2,439	2,200	1,553	1,303	1,303	1,055	1,055	-536	적전	적전	-97.8	52,400
	한화테크윈	2,255	2,163	1,964	1,793	1,628	1,604	1,482	1,192	1,173	-35%	-28%	31.4	36,800
	LIG넥스원	3,733	3,624	4,557	4,664	4,681	4,747	4,656	2,975	2,680	-43%	-43%	21.6	57,800
피팅	성광벤드	-83	-75	-100	-148	-178	-178	-178	-233	-256	적지	적지	-37.4	9,60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4.9	10,350
	하이록코리아	1,909	1,896	1,874	1,873	1,873	1,873	1,873	1,947	1,983	6%	6%	13.4	26,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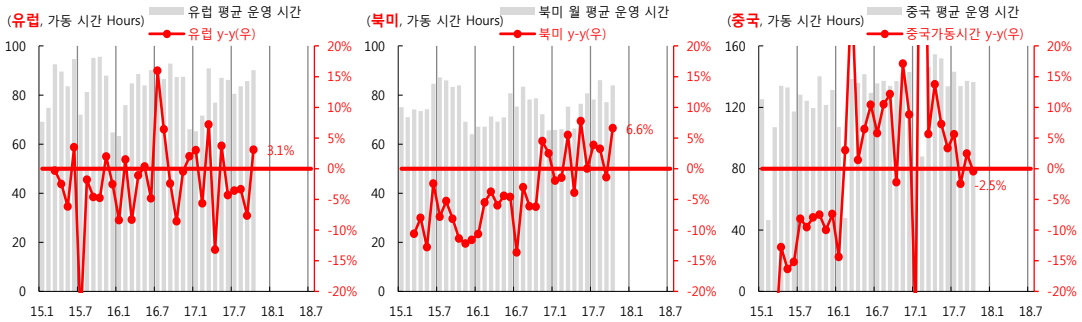
		2017 BPS(원)									ROE		VALUATION
그룹	종목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0.21	17.10.28	17.11.04	17.11.11	17.11.17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09,808	207,239	205,482	218,598	217,544	217,544	226,187	226,656	226,237	19%	1%	0.7
	삼성중공업	18,763	18,804	18,711	18,723	18,762	18,762	18,867	18,820	18,813	2%	1%	0.7
	현대미포조선	112,189	116,105	119,596	122,063	119,216	119,216	126,266	127,658	127,640	15%	3%	0.7
	한진중공업	8,806	8,833	8,810	8,656	8,025	8,025	8,025	8,025	8,025	-11%	2%	0.5
두산	두산중공업	31,005	30,714	30,164	30,062	30,126	30,609	30,922	29,377	29,377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572	10,646	10,616	10,987	10,419	10,768	10,683	10,694	10,694	9%	10%	0.8
	두산엔진	7,877	7,920	7,956	7,921	7,784	7,784	7,784	7,773	7,773	2%	2%	0.6
기계	현대건설기계	234,645	231,663	232,512	267,853	282,415	282,415	293,900	303,559	110,160	13%	13%	1.5
	현대일렉트릭	232,775	232,450	225,780	243,098	242,828	247,744	276,425	276,425	276,425	9%	10%	0.4
	LS산전	39,138	38,940	39,086	39,113	39,419	39,360	39,589	39,589	39,589	10%	11%	0.0
	현대엘리베이	37,757	37,757	36,969	35,026	35,026	35,026	36,269	34,503	34,503	11%	11%	1.6
	현대로템	17,085	17,066	16,964	16,854	16,758	16,758	16,746	16,748	16,748	2%	5%	1.1
방산	한국항공우주	16,307	16,234	15,904	15,370	15,351	15,351	15,214	15,214	13,440	-4%	13%	3.9
	한화테크윈	45,802	45,520	45,246	45,013	44,979	44,672	44,072	44,180	44,180	3%	4%	0.8
	LIG넥스원	31,402	31,298	32,127	32,229	32,241	32,395	32,155	30,239	30,239	9%	13%	1.9
피팅	성광벤드	16,554	16,540	16,524	16,479	16,442	16,442	16,442	16,362	16,362	-2%	0%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4,001	23,849	23,849	23,800	23,800	23,800	23,800	23,947	23,947	8%	7%	1.1

출처: Dataguid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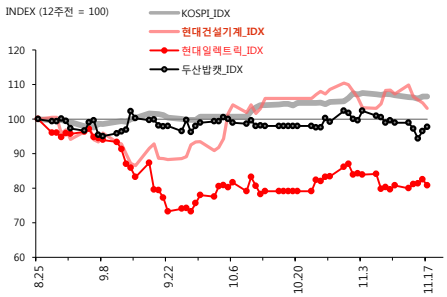
금주의 그림

▶ **10월 굴삭기 가동시간: 유럽, 미국 + 반전하며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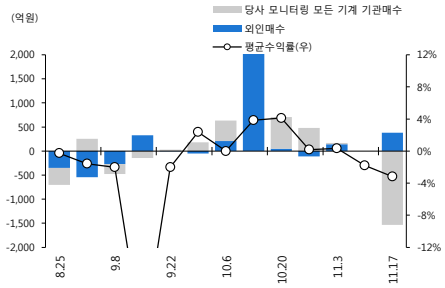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두산밥캣, '포터블파워' 사업 매각한다

http://lnr.li/nScfM

밥캣이 취급하는 2개 품목 중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작은 포터블파워 제조 부문으로 예상 매매가는 3000억~4000억 원 수준으로 관측
주관사 선발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일부 증권사에 배포
중형건설장비(Heavy) 판매사업의 경우 지난 9월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

↘ ▷ 두산 포터블파워 매각: 3000억대 희망가 전해짐

http://lnr.li/yq9YC

두산밥캣이 포터블파워(Portable Power) 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수의 글로벌 경쟁사들이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
매도자 측은 최근 업황 개선세 등을 근거로 최소 3000억 원대 밸류를 적정 가치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짐
사업부의 최근 실적을 감안한 최근 3년치 연평균 영업이익은 대략 250억 원 수준
: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상각 전 영업이익은(EBITDA)은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
국내외 M&A 시장에서 성사된 거래 밸류에이션 평균치가 10~11배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두산밥캣이 왜 적정 매각가를 3000억 원대로 책정했는지 설명
스웨덴의 'Atals Copco'를 비롯해 'Chicago Pneumatic'와 'Sullair', 'Airman' 등 해외 유수의 경쟁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독일과 인도, 브라질 내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도 인수를 통한 사업분야 확장을 고려

탈원전 & ESS

▽ 효성 중공업부문 3분기 실적 부진

http://lnr.li/aTnwE

3분기 매출액은 5215억원, 영업이익은 13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4.6%, 영업이익은 94.5% 각각 감소
올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3%, 95.3% 하락
회사 측은 전력시장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
... ESS(에너지저장장치), 스태콤(STATCOM) 등 신사업 수주확대와 지속적인 원가절감 등 수익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

△ '해상풍력발전시대 활짝' 제주 탐라해상풍력 30㎿ 상업운전 돌입

http://lnr.li/d8D27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해상에 3㎿급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 지난 9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상업운전에 돌입
수심 16~20m의 해저에 풍력발전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구조물인 재킷(Jacket)을 설치한 뒤 ...
... 다시 80m 높이의 철제 타워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발전장치와 지름 91.3m의 날개를 단 것
약 2만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8만5천㎿h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앞서 지난해 9월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3㎿급 해상풍력발전기 3기를 먼저 설치하고 계통 연결을 한 뒤 발전 개시 기념식
2015년 4월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국산 해상풍력발전기로 해상풍력발전시대가 열린 것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육·해상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 △ 대기업들 "이제는 해상발전"

1) SK건설은 최근 울산 북구 강동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짓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
발전 용량은 3㎿ 발전기 32기(총 96㎿) 규모, 총 사업비는 약 5천억원 수준, 2020년 착공을 목표
2) SK E&S도 포스코에너지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
두 회사는 2021년까지 서쪽과 북동쪽 바다에 각각 300㎿(메가와트), 96㎿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3) 한국서부발전도 전남 완도에 해상풍력소 건설을 추진: 이미 지난달 28일 완도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150㎿급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후 추가 입지개발을 통해 완도군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4)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이번달 안으로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 해상에 풍력발전단지를 준공
5) 한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 유니슨, 4.2MW급 'U136' 풍력발전기 개발성과 공개

http://lnr.li/nSePx
2015년말 4MW급 모듈식 드라이브 트레인 개발에 대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2년간의 개발 성과를 처음 소개
모듈식 드라이브트레인은 생산공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립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
... 부분적으로 조립된 드라이브 트레인 구성품을 현장에서 직접 조합하는 첨단 방식으로 생산
해상풍력 평균 설치 용량이 3~4 MW급인 가운데 유니슨의 4MW급 풍력발전기는 육상뿐 아니라 해상용으로도 가능
내년 1분기까지 'U136' 풍력발전기 개발이 완료
최근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리파워링(Repowering) 시장과 향후 풍력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각광
리파워링이란 2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설비를 최신대형터빈으로 교체해 발전용량과 효율을 끌어올리는 에너지 사업을
4.2MW 풍력발전기 상용화는 내년 성능평가 및 국내외 인증을 거쳐 2019년쯤 가능할 전망

큰 기계들

▲ 두산그룹, 두산엔진 매각착수

http://lnr.li/dHXQ1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엔진 지분 44.66%를 매각할 방침
크레디트스위스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고 다음주 중 투자안내서가 배포될 예정
두산그룹이 두산엔진 매각에 나선 것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사업 연관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
두산엔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기준 매출액 6395억원, 영업이익 170억원을 기록

▲ 두산중공업 4700억 규모 인도네시아 발전소 전환사업 착수

http://lnr.li/mCPq5
인도네시아 전력청으로부터 4700억원 규모의 무아라 타와르(Muara Tawar) 발전소 전환사업 착수지시서(Notice to Proceed·NTP)를 받음
지난 3월 수주한 무아라 타와르 발전소 전환사업은 기존 1150MW급 가스화력발전소에 ...
...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와 스팀터빈 3기를 공급, 1800MW급 복합화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공사
인도네시아 전력청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문 기간에 착수 지시서를 발급: 연내 450억 원의 선수금을 수령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12월 수주한 그라티(Grati) 복합화력발전소 전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 2012년에는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660MW)를 준공한 바 있음

▽ 공정위, 서울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담합 적발: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http://lnr.li/crzvJ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500만원 부과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최대 주주는 지분 29.89%를 보유한 정몽규 회장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GS네오텍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 '히타치' 19년만에 한국시장 재진출... 엘리베이터 업계 술렁

http://lnr.li/o22P6
히타치엘리베이터코리아는 미쓰비시, 도시바와 함께 일본 3대 엘리베이터 생산업체로 꼽히는 히타치제작소그룹이 지난 6월 설립한 한국법인
다음달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국내 영업 돌입을 공표할 예정
재진출한 이유는 최근 초고층빌딩들이 많이 세워지고 시장 규모도 3조원대로 커져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1984년 설립된 현대엘리베이터가 1위 사업자로, 지난 6월말 기준 시장점유율 43.1%를 차지
: 업계 2위는 독일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25.9%), 3위는 미국계 오티스 엘리베이터(11.7%)
히타치의 강점은 초고속 기술력: 지난 6월 중국 광저우시 지상 111층, 530m 짜리 빌딩인 CTF파이낸스센터에 초속 21m의 세계 최고속 엘리베이터 설치
1970년대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전신인 LG산전과 기술제휴를 맺으면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국내 최초로 초고층 엘리베이터를 공급한 바 있음

작은 기계들

▽ 계속된 K2전차 국산 파워팩 문제, 2차 양산 사업 결론 못내

http://lnr.li/o8CP1
군 당국은 1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을 심의·의결할 계획
이날 회의에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다음 번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1차로 양산한 K2 전차 100대에 대해선 국산 파워팩 개발 지연으로 독일 제품을 장착해 2014년 우선 전력화한바
2차 양산하는 100여대와 3차 양산분 100여대 부터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할 계획
K2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 하기 위해 쏟아부은 비용은 128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725억원, 업체가 555억원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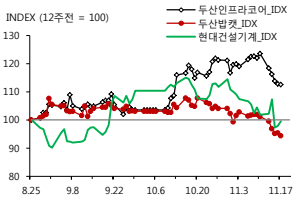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세계1위 흔들린다

http://lnr.li/l0Hyy
김성태 선박평형수처리장치협회장(테크로스 전무)은 13일 "국내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최고 53%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말 40%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
한국기업이 53% 점유율을 기록했을 때 전 세계 20개 기업 중 한국기업은 절반인 10개: 지금은 72개 기업 중 9개만 한국기업, 그 중 영업을 하는 곳은 5개에 불
그 사이 일본은 2개에서 8개로, 중국은 4개에서 14개로 느렁남
선주들이 많은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에서도 각각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기업들
한국이 선발기업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IMO에서 관련 규제를 발동하는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IMO는 올해 9월 8일부터 평형수관리협약을 발효
: 협약을 채택한 후 13년이 지났고, 그나마 새롭게 만드는 선박부터 적용하고, 운항 중인 선박은 발효시점을 2022년 9월 8일에서 2년 더 늦춤
미국 연안경비대(USCG) 규정도 평형수 기업들의 생존을 판가름하는 변수
세계 선박의 50%가 운항하는 미국은 IMO 규정보다 승인절차를 까다롭게 하고(1단계. 발효 중), 환경적합성 기준도 강화한(2단계. 2019년 예정) 규정을 적용
노르웨이가 처음 이 규정을 통과했고, 한국은 삼성중공업과 테크로스가 내년 상반기 중 이 규정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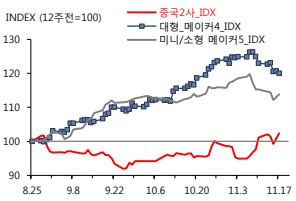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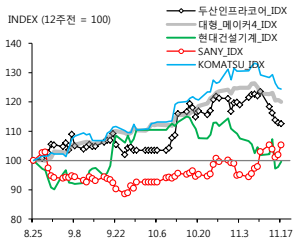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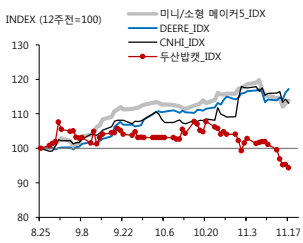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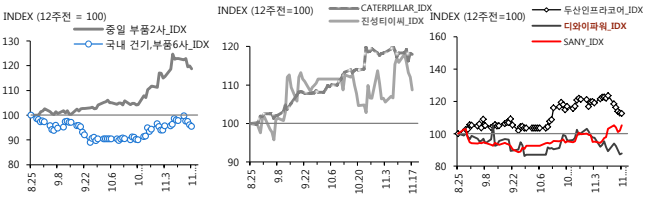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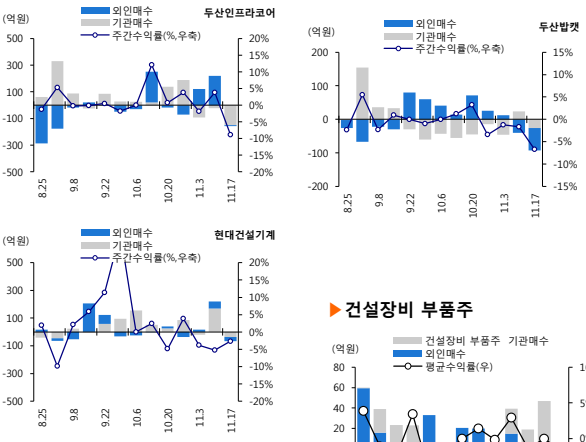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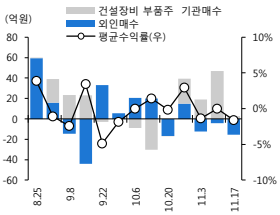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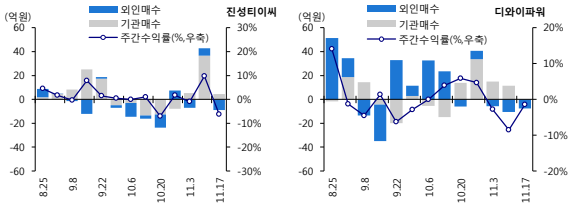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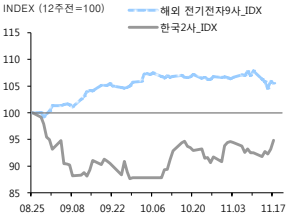


주석) 부품주4사: 진성티이씨, 디와이파워, 흥국, 동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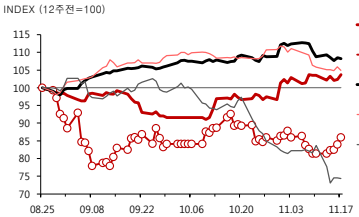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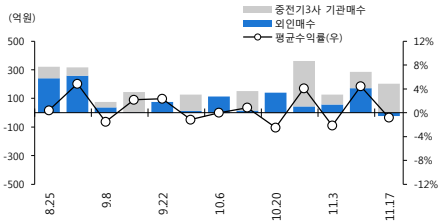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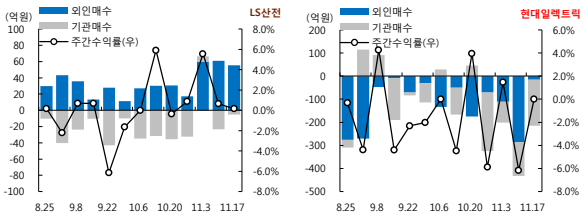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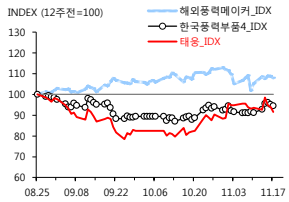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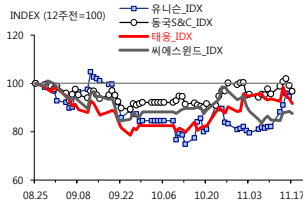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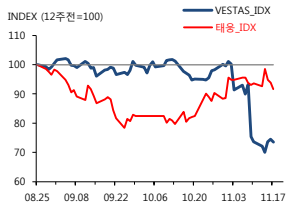
풍력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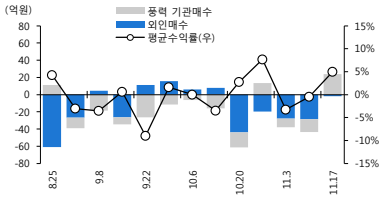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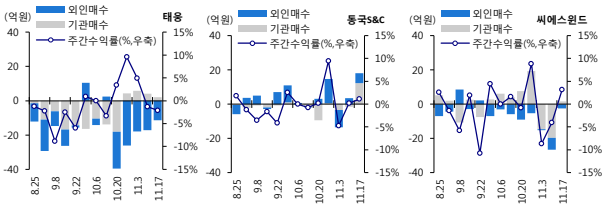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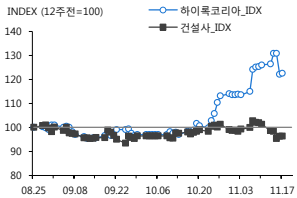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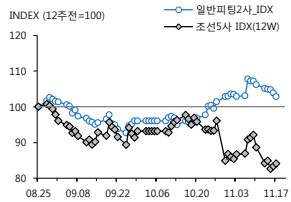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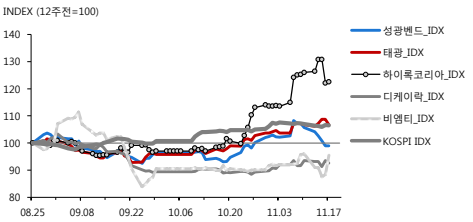
피팅

▶피팅 VS 전방1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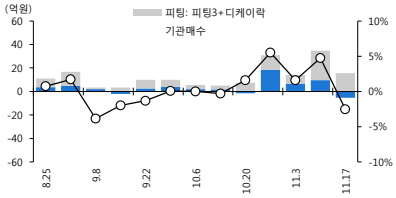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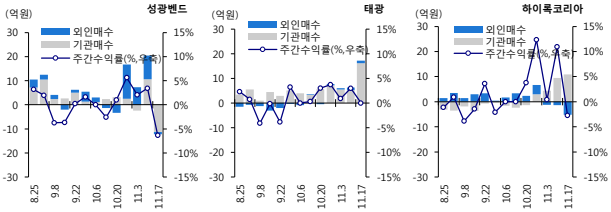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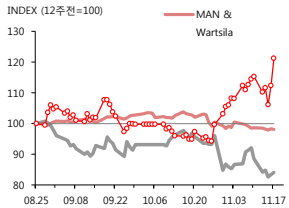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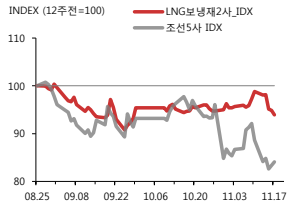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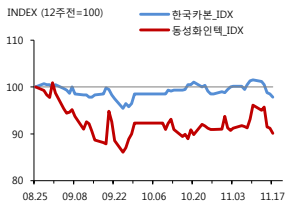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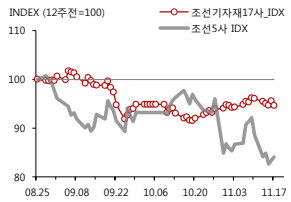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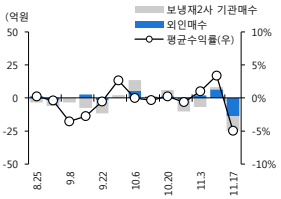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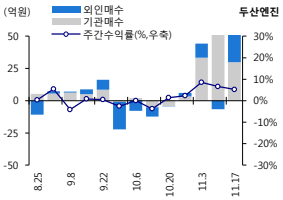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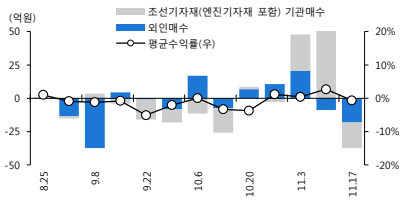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보냉재 2사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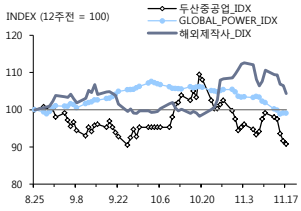


HI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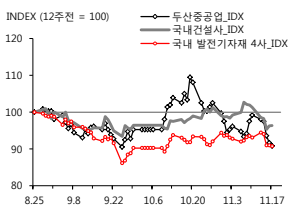
최광식 02_2122_9197
gs.choie@hi-ib.com
원민석 02_2122_9193
ethan.won@hi-ib.com

발전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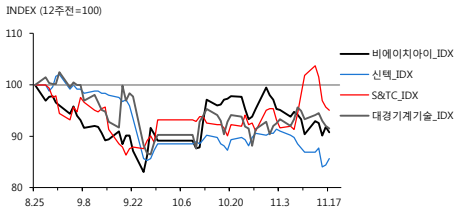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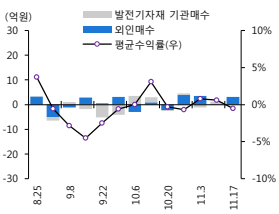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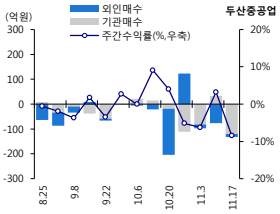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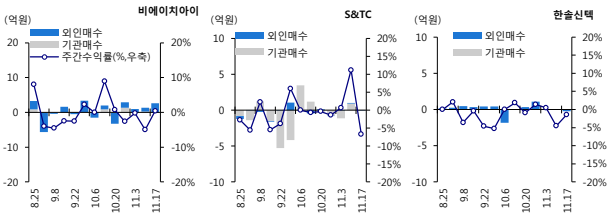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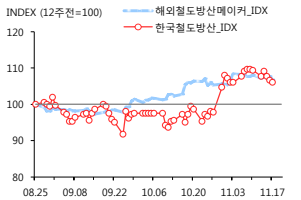


주석) 비에이치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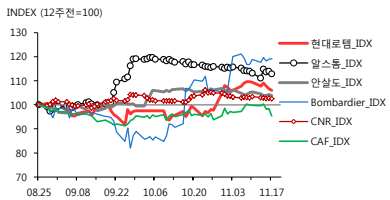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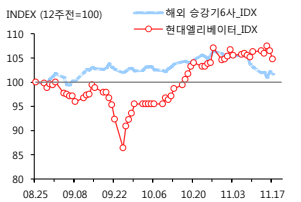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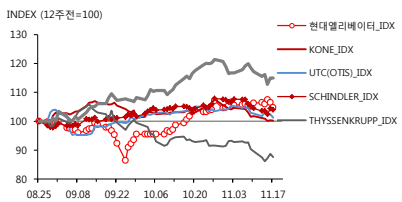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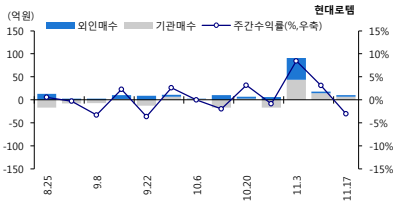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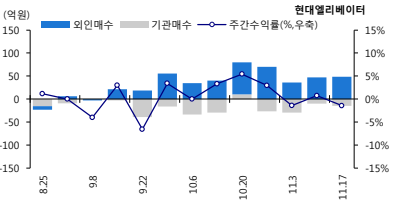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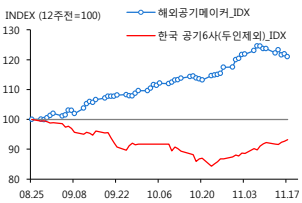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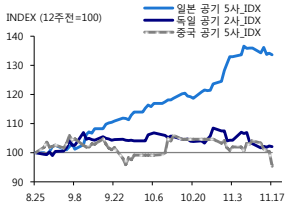


공작기계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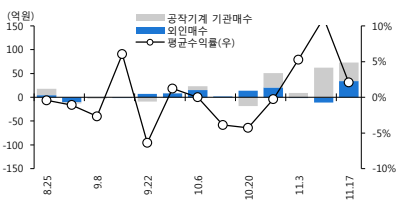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8.3 %	11.7 %	-